

이차전지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총력'

군산시,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안전 업무협약 · 공장 가동 전 안전대책 현장점검 등 적극 대응

군산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차전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업과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다.

먼저 군산시는 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 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군산시는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결과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모기업은 신기술(공법)적용 시설별 사전 안전성 평가와 설비의 취급물질별 이상반응 분석 등을 통해 설계 반영과 설비개선 등 사고예방 대책을 담은 위험성 평가결과를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공유했다. 이는 기관 간 업무협약의 첫 결실로 이차전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민·관·산·학 거버넌스로 구성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는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취급기업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가동 전 안전대책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피캠텍(주)를 시작으로 한 안전대책 점검은 올해는 (주)성일하이텍 3공장과 천보비엘에스(주)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장 가동 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과 사업장별 비상대응계획 점검을 시행했고 이런 활동을 통해 기업의 화학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꾸준한 기관 간 협업과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 공모전 표창

챌린지 우수 참여 어린이집 5곳 · 보육교직원 7명 선정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한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기여

익산시가 25일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1회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 공모전 표창식을 개최했다.

익산시는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 △친환경활동 △익산 역사·문화관광지 탐방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역현안 참여 등 4가지 영역에서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는 지난해 처음 시작해 지난 달까지 친환경활동 3,750명, 역사·문화관광지 탐방 9,144명 등 지역 148개소 어린이집에서 참여했다.

익산시는 챌린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은 각 가정에서 모아온 재활용품을 친환경 칫솔로 교환하는 등 자원순환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이리별나라, 포레나익산, 정토원광, 해나라 어린이집 등 4개소에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어린이집 챌린지 공모전에 참여한 보육교직원 7명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챌린지를 마중물로 익산시 어린이집만의 우수하고 특색있는 보육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문화유산의 새로운 탄생... 익산 '숨리문화금고' 개관

옛 익산금융조합서 탈바꿈... 복합문화공간 '기대'

익산의 문화유산인 옛 익산금융조합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25일 '숨리문화금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은 정현을 익산시장,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인화동 주민, 구시장 및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숨리문화금고에서 마롱이와의 금융체험과 문화유산백지, 엽서 등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숨리문화금고(인북로 12길 5-1)는 1925년 건립된 옛 익산금융조합 건

물로 익산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 방문자센터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상설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금융조합 관련 유산을 소개하고, 홀로렌즈와 MR체험, 열리지 않는 금고 등 전시와 놀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기획전시실에는 '숨리 그리고 인화'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 구술 영상, 주민들이 기증한 물건들을 통해 인화동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만나 볼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해설사와 운영

자로 활동해 인화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숨리문화금고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전시와 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 숨리문화금고를 시작으로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익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숨리문화금고가 위치한 익산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은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돼 있다.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계좌 잔액 확인하세요"

지방세 자동납부대상자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군산시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월 자동이체 일(납부기한) 전에 지방세 자동납부(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대상자에게 통장 잔고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납부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

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납부 당일 예금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해 원치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납부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납부서비스는 은행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주거래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의 다음 날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정 결산

지난 2022년 7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출범한 9대 군산시의회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통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일 의장은 "돌이켜 보면, 쉽지가 않던 2년이였다"며 "29명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어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 그리고 새만금관할권 사수 등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총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바로 출범한 9대 군산시의회는 강화된 기초의회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로 입안 결과 간담회·현장방문을 통해 소통하는 민생의정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 5분 발언 134건, 의원발의조례 121건, 시

'새만금 · 지역의 미래 위해 온 힘'

의원발의 조례 121건 등 역대 의회 중 가장 왕성 새만금 관할권 사수 등 총력

정질문 9건, 건의안 36건, 성명서 10건, 결의안 9건 등 역대 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각 상임위원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친 결과 2022년 364건, 2023년 444건의 시정·처리 요구했으며, 예술단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옥회천 정비사업, 경암동 군산로킴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사업,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그리고 최근 지곡동 산 137-1 일원 공동주택 신축 승인까지 군산시 시정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시에는 전년도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관행적·반복적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활동 빛나

9대 군산시의회는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군산항 대책마련, '신동진비' 정보보급증대 지원 부당,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촉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등 건의·결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 및 변경을 예의주시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칫 시민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을 알리고 나아가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군산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수많은 조례들을 제정했으며, 기존 조례안을 일부개정 등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으로 시민행복과 잘사는 군산 만들기를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등은 5분발언 이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으로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고, 청년기업으로 인증해 지원 하는 사업이 시에서 추진됐다.

▲새만금 관할권 사수 등 총력

9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은 단연 '새만금'으로 군산시의회 29명의 의원 모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삭발투쟁도 불사했으며, 김제시의 관할권 분쟁에 대응해 낱새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군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할 것과 새만금 3개 시군 통합 등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복지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해 입법활동 및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9대 군산시의회는 분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을 초청하고, 유튜브로 분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카톡채널·블로그·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시민들이 의정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개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가 2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식전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회고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호헌단체장, 기관단체장, 군인,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또한, 행사장에 UN참전국 국기를 게양해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6.25 전시 전지전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에선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대신해 유가족 6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고, 모범국가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참전용사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개최

익산시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렸다.

시는 25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9585부대 3대대장, 호헌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모범 국가유공자 및 유족 9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익산=이재춘 기자